

元曉大師의 悟道說話에 대한 研究

『宗鏡錄』과 『宋高僧傳』과 『林間錄』의 記事를 中心으로

洪在德*

- | | |
|---------------------------|--------------------------|
| I. 緒論 | IV. 『宋高僧傳』中 元曉傳에 대한 註解論評 |
| II. 『宗鏡錄』에 대한 註解論評 | V. 『林間錄』에 대한 註解論評 |
| III. 『宋高僧傳』中 義湘傳에 대한 註解論評 | VI. 結論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원효대사의 入唐求道 사실여부와 悟道說話에 대한 오류에 대하여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은 『宗鏡錄』, 『宋高僧傳』, 『林間錄』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참고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원문과 번역문을 먼저 수록하고 그 다음에 주해논평을 실어 오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원효의 입당구도사실은 『宋高僧傳』중 元曉傳의 원문을 올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입당구도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慈恩之門”의 본뜻을 온전하게 번역을 하지 못하고 견강부회하는 왜곡된 오역으로 인하여 입당구도사실이 부정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였다.

원효의 오도장소와 시기는 입당하여 삼장의 문하에 들어가고 삼장이 열반한 664년 이후에 새로운 스승을 찾아 방황하던 중 夜宿塚間에서 오도의 경지에 이르러 원효는 666년경 홀로 귀국하고 의상은 至相寺 지엄의 문하로 들어가고 668년에 지엄이 열반하므로 671년경 귀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원효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四大說話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한 결과 4대설화 중 『宋高僧傳』 元曉傳의 기사와 『宗鏡錄』의 기사가 가장 정통한 것으로 판단되고 『宋

* 성균관 자문위원

高僧傳』 중 義湘傳의 기사는 이론이 정연하지 못하고 사리에도 모순이 많고 두서 없이 기록이 되어있어 전거로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하겠다.

• 주제어

悟道說話, 四大說話, 慈恩之門, 入唐求道, 海門唐州界

I. 緒論

元曉大師는 위대한 사상가이며 불교의 대중화를 기한 教化僧이며 많은 저술을 남긴 文學僧으로서 불교를 빛낸 영결한 聖師임에는 틀림없는 인물이다. 그는 戒律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無碍의 자유분방한 奇行으로 世人들을 놀라게도 하였다. 그의 卓異한 行적에서 특기할 行적을 꼽는다면 아마도 해골물 일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悟道說話에 대한 정설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悟道說話에 대한 연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원효대사의 오도와 관련된 기사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신라 선덕왕 4년(890)에 세운 충주의 『月光寺圓朗禪師塔碑』에 圓朗선사¹⁾가 오묘한 진리를 배우고자 檣山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神僧 元曉大師가 도를 이룬 곳이다.²⁾ 라는 기록이 있으나 진실로 원효가 成道한 곳인지 아니면 성도와는 관계없이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典據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원효대사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자료는 그로부터 71년이 지난 후에 中國에서 기록된 『宗鏡錄』³⁾이 있고, 두 번째로는 『宋高僧傳』⁴⁾이 있고, 세 번째로는 『林間錄』⁵⁾ 등 3大佛書가 있으나 모두가 다 中國에서 기록된 자료이다. 따라서 그 후에 기록되는 자료들은 모두가 다

1) 圓朗禪師의 俗姓은 朴大通이고 取城郡 사람이다. 그는 816년에 태어나 845년에 승려가 되고 856년에 입당하여 11년간 불도를 배우고 돌아와 戒천의 월광사에서 883년에 입적하였다. 원랑선사탑비는 그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890년에 월광사에 세워지고 1922년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고 보물 제360호로 지정되었다.

2) 『월광사원랑선사탑비』(890년), “神僧元曉成道之所也.”

3) 宋나라 延壽선사 撰(961년), 『宗鏡錄』, 中華民國 商務印書館, 1935.

4) 宋나라 친수사 通혜대사 贊寧 撰(988년), 『宋高僧傳』, 中華書局出版, 1987.

5) 北宋의 혜홍각범 德洪선사 撰(1107년), 『林間錄』.

이 三大佛書에서 파생되어 와전되고 변형되어 유포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3대불서 이후에 기록된 자료를 전거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삼대불서의 기사도 원효의 생전에 쓰여진 설화가 아니고 원효가 열반한⁶⁾지 275년이나 지난 뒤에 최초로 쓰여지기 시작한 기사이므로 傳聞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실여부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효의 생애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자료이므로 3대불서를 기본전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종경록』은 961년에 찬술되었고 『임간록』은 1107년에 찬술되어 146년이나 지난 뒤에 찬술된 자료이기 때문에 146년이나 지난 후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간록』의 기사를 전거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효대사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 해골물 일화이기 때문에 해골물 일화를 인용하기 위하여 『임간록』의 기사를 전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3대불서라고 하지만 『송고승전』에는 義湘傳과 元曉傳이 각각 別傳으로 분리되어 따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종경록』과 『임간록』의 설화를 포함하여 그 내용이 4종류의 설화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효의 悟道說話의 기본설화를 <四大說話>로 지칭하고자 한다.

4대설화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하나의 설화로 통일된 설화라면 논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4대설화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정설로 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4대설화를 하나 하나 점검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원효의 오도설화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가 다 원문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도 없이 단순히 해설하는 수준에 그치고 또 건강부회하는 번역과 모호한 오역으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데도 그에

6) 『元曉年譜』, 원효사상연구소.

대한 지적이나 비판도 없이 오히려 이를 답습하고 있어 이에 그 진실을 밝히 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有名高僧 중 오직 원효대사만이 유일하게 入唐求道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그것은 『송고승전』 원효전에 “慈恩之門”에 대한 번역을 모호하고 왜곡되게 번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효의 오도과정에 대하여는 唐城에서 해골물 일화로 悟道하여 入唐을 포기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과연 그 주장이 온전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宗鏡錄』에 대한 註解論評 元曉의 悟道관련기사 抄錄

원효대사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4대설화 중 최초로 기록된 『종경록』은 961년에 宋나라 延壽선사가 편찬한 것이다. 연수선사는 중국 법안종의 제3조인 연명연수로서 선교일치사상·선정쌍수사상·삼교일치사상을 융합하고 화엄·유식·천태의 삼종을 주의로 하고 一心爲宗의 입장에서 唯心の 뜻을 밝혀 이루고자 大乘經論 60부 賢僧 300여인의 언행과 가르침을 標宗章 問答章 引證章의 삼부로 대별하여 100권으로 편찬하고 一心을 중지로 삼고 거울처럼 비추어 보았다 하여 『宗鏡錄』이라 이름을 하였다고 하였다.

『종경록』 제11권에는 원효가 入唐求道 중 오도설화에 대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어 오도설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되고, 마지막 권에는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에 대한 논의 실려 있다.

원효대사의 입당구도 중 오도과정에 대한 기사만을 초록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 昔有東國 元曉法師 義湘法師 二人同來 唐國尋師 遇夜宿荒 止於冢內 其元曉法師 因渴思漿 遂於坐側 見一泓水 掬飲甚美 及至來日 觀見 元是死屍之汁 當時心惡吐之 豁然大悟 乃曰 我聞佛言 三界唯心 萬法唯識 故之 美

惡在我 實非水也 遂卻返故國 廣弘至教

번역문 : 옛 동국 신라에 원효법사와 의상법사 두 사람이 함께 당나라에 와서 스승을 찾아가다가 밤이 되어 황폐한 무덤 안에 머물러 유숙하게 되었다. 그때에 원효법사는 갈증을 느끼고 마실 물이 생각나서 물을 찾던 중 마침내 자리 곁에서 고인 물을 발견하고 손으로 떠서 마셨더니 심히 맛이 좋았다.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아 살펴보니 그 물은 원시 부패된 시체에서 흘러나와 고인 물이었다. 그때에 마음속에 심히 혐오감을 느끼고 모두 토해버리고자 하다가 마음이 활짝 열리듯 크게 깨달은바 되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부처님 말씀에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인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美水와 惡水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 실체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 널리 교화에 힘썼다.

註解論評 : 원효대사의 오도설화에 대한 최초의 기사로서 논리가 정연하고 사리가 분명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오도설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효대사의 입당 구도 중 오도설화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전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Ⅲ. 『宋高僧傳』 中 義湘傳에 대한 註解論評 唐新羅國 義湘傳에서 抄錄

원효대사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두 번째로 기록된 『송고승전』은 宋나라 친수사 통혜대사 贊寧이 송태조의 명을 받고 高僧 533명의 전기와 130명의 부전을 기록하여 988년(端拱 元年)에 찬술한 것이다.

『송고승전』 제4권 12에 唐 新羅國 義湘傳에서 원효의 오도설화에 관한 기사만을 발췌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 釋義湘 俗姓朴 鷄林府人也 生且英奇 長而出離 逍遙八道 性分天然 年臨弱冠 聞唐土 教宗鼎盛 與 元曉法師 同志西遊 ①行至本國 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 條於中塗 ②遭其苦雨 遂依道旁 土龕間隱身 所以避飄濕焉 迨乎 明旦相視 乃古墳 骸骨旁也 ③天猶震霖 地且泥塗 尺寸難前 逗留不進 又寄埤壁之中 夜之未央 ④俄有鬼物 爲怪 曉公歎曰“前之寓宿 謂土龕而且安 此夜 留宵託鬼鄉而 多崇則知 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又 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⑤我不入唐 却携囊返國 ⑥湘乃雙影孤征 誓死無退 ⑦以總章二年 附商船 達登州岸……⑧湘乃徑趨 長安終南山 智儼 三藏所 綜習華嚴經 時康藏國師 爲同學也……號海東華嚴初祖也(①~⑧의 표시는 문제가 있는 문장에 대한 주해논평을 위한 구분표시다.)

번역문 : 승 의상의 속성은 박씨요 계림부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영기하여 자라면서 집을 떠나 팔도를 소요하여 성품이 천연스러웠다. 나이 약 관에 이르러 당나라에는 教宗이 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원효법사와 더불어 唐나라로 가기로 뜻을 같이하고 길을 떠나 ① 일행이 우리나라 海門에 이르렀으니 唐州의 경계이다. 큰 군함을 구하여 장차 바다를 건너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중이었다. ② 소낙비를 맞나 길가의 토감사이에 몸을 의지하여 비바람을 피했다.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아 살펴보니 곁에서 해골이 뒹구는 고분이었다. ③ 하늘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땅은 진흙길이라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다시 연벽 속에 머물러 기숙했다. 아직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 ④ 갑자기 귀신(도깨비)이 나타나니 괴이하다.

원효가 탄식해 말하기를 “어제 밤에는 토감에서 잠을 자도 편안했는데 오늘밤에는 귀향에 의지해 유숙하니 다송함을 알겠구나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감과 고분이 둘이 아니다. 또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인 것을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라 ⑤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배낭을 둘러메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⑥ 의상은 한 쌍의 그림자처럼 행동을 같이하다가 홀로 외롭게 되었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⑦ 총장2년(669년)에 상선에 편승하여 등주해안에 도착하였다. ……

⑧ 의상이 이에 곧바로 장안 중남산의 智儼과 三藏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화엄경을 모두 익혔으니 이때에 康藏국사(賢壽)와 함께 수학한 것이다. ……호를 해동화엄초조라고 하였다.

註解論評 : 『송고승전』 義湘傳의 기사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①“行至本國 海門唐州界”의 번역은 1)“일행이 우리나라 海門에 이르렀으니 唐州의 경계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정통한 번역이라 할 수 있고 또 2)“일행이 우리나라 바다의 관문인 唐州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海門은 현재 “화성시 마도면 海門里”를 말하는 것으로 해문리는 당성의 맞은편 안산 너머의 마을로 남양에서 마도 해문리 唐城으로 오가는 길목에 있어 당성으로부터 약 3km지점에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海門驛站⁷⁾이 있어 唐城과 中國으로 오가는 관리들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기도 하다.

또 唐州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唐州는 곧 唐城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唐州의 경계지점인 해문리에 이르렀다고 한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 唐城에는 도착하기 이전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학자들의 번역에 의하면 3)“일행이 우리나라 海門이자 唐의 州界에 이르러”라고 번역을 하고 이 번역이 가장 정통한 번역인 것처럼 모두 이에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나 이 번역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번역이다. 특히 이에 대한 해석을 唐城에 이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 번역에 대하여 재해석을 한다면 “일행이 우리나라 바다의 관문인 唐나라의 國境에 이르러”라고 해석이 되는 번역이지 唐城의 경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이 되는 번역이 아니다.

“唐州界”를 번역함에 있어서 “唐의 州界”라고 번역을 하면 唐나라의 國境

7) 『世宗實錄·地理誌』, 남양도호부주, “南陽驛站”

을 말하는 것이 되고 “唐州의 경계”라고 번역을 하면 이는 唐州라는 지역의 경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되는 번역이다. 따라서 “海門이자 唐의 州界에 이르러”라고 하는 번역은 唐나라의 國境에 이르렀다는 번역이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唐城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번역문과 해석이 다른 것이니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唐州”를 唐城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唐州라는 地名으로 이해하고 번역을 한다면 唐州는 唐나라 南陽부에 속하는 지명이므로 “원효일행이 唐나라 海門을 거쳐 唐州에 이르렀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번역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구절에 “계구거함 장일창과”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唐州라는 지명은 중국의 하남성 南陽府의 속현으로 唐나라때부터 唐州라 이름 하다가 명나라때 泌州로 고치고 현재는 南陽市 唐河縣 唐城촌이라 하는 곳으로 이곳도 역시 上海의 海門으로부터 西安의 慈恩寺로 오가는 길목에 있는 지명이므로 이곳으로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唐州는 신감 대사가 머물러 수도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둘째 그 다음 구절에 ②“遭其苦雨 遂依道旁 土龕間隱身”이라고 하였다. 이는 “소낙비를 맞나 길가의 土龕사이에 몸을 숨겼다”는 것이니 토감이란 壁龕葬 洞窟葬과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葬法제도이다. 이는 중국 둔황의 막고굴에 佛龕과 龕室과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규모와 형태로 절벽아래에 석굴을 파고 불상을 모시거나 屍身을 안치하거나 규모가 큰 토감에서는 사람이 거주하기도 하는 시설물이다. 현재에도 중국의 산간오지의 소수민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시설물이다.

土龕이란 고산준령과 자연적인 절벽이 많은 고산지대에서만 가능한 시설이며 고산이 없고 야산지대인 우리나라에는 토감이나 석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토감의 실체가 존재하는 중국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唐城에서 오도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 또 기록하기를 ③“天猶霖霖 地且泥塗 尺寸難前 逗留不進 又寄埏埴之中”이라고 하였다. 즉 “하늘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땅은 진흙 길이라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연벽 중에 머물러 기숙했다.”라고 하였으니 과연 소낙비도 아닌 가랑비 때문에 황폐한 고분을 떠나지 못하고 이틀 밤이나 연이어 기숙을 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연벽이란 塼築墳 또는 石室墳에 광중으로 통하는 埏道를 말하는 것으로 합장이나 가족장을 위하여 출입구에는 석판 등으로 가려놓아 사람이 출입을 할 수도 있는 연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지제도는 중국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묘지제도이다. 앞에서는 토감이라 하였고 또 “埏埴之中”에 머물렀다고 하였으니 土龕과 埏埴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시설물이다. 따라서 이는 앞뒤의 논리에도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묘지 시설물이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또한 오도과정에 대하여도 ④“俄有鬼物爲怪”라고 하였다. 즉 “갑자기 귀신(도깨비)이 나타나 괴이하다.”하고 이로 인하여 道를 깨우쳤다고 하였으니 과연 귀신을 보고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이론이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오도과정에 대한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이를 원효의 오도설화라고 인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효가 唐城에서 오도를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골물이 아닌 귀신(도깨비)을 보고 오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해야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唐城에서 오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골물 일화를 인용한다면 이는 『임간록』의 기사를 인용하여 짜깁기하는 왜곡된 주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고승전』 의상전의 이론은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여 원효의 오도설화로 일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또 ⑤“我不入唐 却携囊返國”이라고 하였다. 즉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배낭을 둘러메고 故國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였으니 이

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불입당이라 하고 義湘을 唐城 나루터에 홀로 남겨두고 원효가 먼저 배낭을 둘러메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니, 義湘은 수만리 황해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원효가 배웅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되돌아갔다고 하는 이론이 되는 것이니 과연 이와 같은 이론이 사리에 맞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무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만리 머나먼 타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義湘을 배웅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욱이 返國이란 他國에서 自國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唐나라에는 가지도 아니하고 신라의 唐城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返國이라고 표현한 것은 唐城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唐나라 땅에서 신라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返國”에 대한 해석을 신라의 당성에서 경주로 돌아온 것을 返國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를 경주가 신라의 國都이기 때문에 당성에서 國都인 慶州로 돌아온 것을 “返國”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하고 견강부회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신라의 학자가 신라의 문헌에 쓴 기사라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中國의 학자가 中國에서 中國의 문헌에 “返國”이라고 기록한 것이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唐城에서 헤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唐나라 땅에서 의상을 홀로 남겨두고 원효가 홀로 귀국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다.

여섯째 특히 원효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의상이 홀로 남겨진 상태에 대하여 ⑥“湘乃雙影孤征 誓死無退”라고 하였다. 즉 “의상은 원효와 한 쌍의 그림자처럼 행동을 같이 하다가 외롭게 홀로 남겨지게 되었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당성에서 헤어진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당나라에서 헤어진 상태에 대한 표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唐城에서 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곧 唐나라로 떠나가야 하는 義

湘이 죽기를 맹세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그 다음 구절에는 ⑦“總章二年 附商船 達登州岸”이라고 하였다 즉 “669년에 의상이 상선에 편승하여 唐나라 등주 해안에 도착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의상이 661년에 당성을 출발하여 8년이나 지난 669년에 등주에 도착을 하였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니 과연 타당한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669년은 의상이 당나라에 入唐한 해가 아니고 의상이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하는 해이다. 왜냐하면 의상의 스승인 至相寺의 智儼조사가 668년에 열반하였으므로 669년에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중국에 도착한 해가 아니고 중국에서 신라로 귀국하는 해를 두서없이 기록한 것으로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오류라고 지적하는 학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또 다른 입당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으니 의상전에 대한 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에 669년에 등주로 입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상의 스승인 智儼이 668년에 열반을 한 것이 사실인데 智儼이 열반한 후에 의상이 669년에 등주로 입당을 하였다고 하는 기사를 오류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덟째 ⑧“湘乃徑趨 長安終南山 智儼三藏所 綜習華嚴經”이라고 하였다. 즉 “의상이 이에 장안의 종남산에 智儼과 三藏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화엄경을 모두 익혔다.”라고 하였으나 이때에 三藏은 지엄과 함께 종남산에 있지 않았고 慈恩寺와 玉華宮에서 翻經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의상이 삼장과 지엄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만난 것이 아니고 먼저 자은사의 문하에 들어가 삼장을 만나고 삼장이 열반한 664년 이후에 지상사로 옮겨가 지엄조사를 만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가 될 것이다.

의상은 원효와 함께 662년에 慈恩寺로 찾아가 삼장의 문하가 되고자 하였

으나 삼장은 이미 노쇠하여 새로운 제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옥화궁에서 역경에만 여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장의 제자로 入籍도 하지 못하고 다만 食客으로 머물러 있는지 1년여 만인 664년 2월에 삼장이 열반하므로 원효는 스승을 잃고 새로운 스승을 찾아 방황하다가 어느 날 밤 夜宿塚間에서 悟道の 경지에 이르러 원효만이 홀로 666년경 귀국하고 의상은 홀로 남아 지상사로 들어가 賢首, 慧裕, 懷齋와 함께 智儼조사로부터 화엄사상을 사사받던 중 668년에 지엄조사가 열반하므로 671년경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상이 지엄조사를 사사한 기간은 삼장이 열반한 664년 이후 지엄조사가 열반한 668년까지 약 3~4년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올바른 판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義湘은 慈恩寺 三藏의 門下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다만 의상이 홀로 唐城에서 곧바로 至相寺의 智儼에게로 달려가서 662년부터 671년까지 10년 동안 修學한 것이 정설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문에는 “智儼 三藏所 綜習華嚴經”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지엄과 삼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화엄경을 모두 익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효와 의상이 애당초 入唐을 하고자 한 목적도 三藏法師가 서역에서 많은 불서를 가지고 돌아와 慈恩寺에서 교화에 힘쓰고 있어 教宗이 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三藏法師의 門下에 들어가기 위하여 650년경부터 入唐을 시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⁸⁾ 이와 같이 삼장의 문하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비록 의상이 단독으로 입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목적지인 자은사의 삼장법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지도 아닌 至相寺로 먼저 찾아가 10년 동안 지엄에게서만 수업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론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慈恩寺는 서안시내에 있고 지상사는 자은사로부터 약 50km 추정되는 지점의 교외에 있어 목적지인 자은사 앞을 지나 지상사로 가야하는데도 10년 전

8) ①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義湘傳 12, (聞唐土 教宗鼎盛 與元曉法師 同志西遊)

②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14, (嘗與湘法師入唐 慕裝三藏 慈恩之門)

부터 계획했던 목적지인 慈恩寺의 삼장법사에게 인사도 없이 그대로 지나쳐 목적지도 아닌 지상사로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론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상전의 기록은 元曉가 唐城에서 오도를 하고 되돌아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당나라에서 오도를 하고 홀로 귀국을 한 것인지도 분별을 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 의상전의 기사는 문장전체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두서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곳이 8개 항목이나 있는 문장을 온전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상전에 기록이 두서없이 기록된 것은 그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찬영이 스스로 연구하여 찬술한 문헌이 아니고 들리는 소문을 그대로 받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사리에도 모순이 많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두서없이 기록된 문장을 견강부회하는 해석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도 없이 답습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를 정통사서로 신봉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하겠다.

IV. 『宋高僧傳』 中 元曉傳에 대한 註解論評 唐新羅國 皇龍寺 元曉傳에서 抄錄

『송고승전』 의상전에서는 원효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황하게 기록을 하였고 원효전에서는 지극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송고승전』 제4권 14 원효전에 수록된 원효대사의 행적에 대한 기사 중 오도설화에 관련된 기사만을 발췌하여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 釋元曉 姓薛氏 東海湘州人也 …… ①嘗與湘法師入唐 ②慕焚三藏 慈恩之門 ③厥緣既差 ④息心遊往(①~④의 표시는 주해논평을 위한 구분 표시)

번역문 : 원효의 성은 설씨요 동해 상주 사람이다. …… ① 일찍이 의상법사와 더불어 당나라에 들어가 ② 현장삼장을 사모하여 慈恩寺에 門인이 되었다. ③ 그 인연이 어그러져(현장이 1년여 만에 열반하리로) ④ 求道의 마음을 버리고 유유히 돌아갔다.

註解論評 : 앞의 문장과 같이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문장에 대하여는 하나같이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학자에 따라서 10인 10색으로 각각 모호하게 번역을 하는 것은 그 문장에 대한 진정한 語義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문을 번역함에 있어 그 문장에 대한 어의를 모르고 자의적이며 추상적인 번역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앞의 문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0인 10색으로 번역한 문장에 대하여 비교논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1. “①원효가 의상과 함께 ②현장의 자은문을 흠모하여 입당하려 하였으나 ③그 인연이 어긋나서 ④유학을 그만두었다.”⁹⁾
2. “①일찍이 의상법사와 더불어 당나라로 들어가려 하였으니 ②현장이 이룩한 삼장의 지혜로운 세계를 사모하였다. ③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④쉽 없이 마음은 노닐고 떠들었다.”¹⁰⁾
3. “①일찍이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②현장삼장 자은의 문하를 사모한 때문이다. ③그러나 입당의 인연이 어긋나자

9) 金煥泰, 『傳記와 說話를 통한 元曉研究』, 『佛敎學報』 17, 1980.

10) 오대혁, 『원효 설화의 미학』 『불교와 문화』 1, 1999.

④푸근한 마음으로 여러 곳을 다녔다.”¹¹⁾

4. “①일찍이 의상과 入唐하러 한 것은 ②삼장과 자은의 법통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③그 인연이 어그러진 후에 ④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여 유유자적하게 되었다.”¹²⁾

5. “①일찍이 의상법사와 더불어 입당하여 ②현장 삼장을 사모하여 자은사의 門人이 되었다. ③현장이 열반함으로 그 인연이 어그러져 ④求道의 마음을 접고 유유히 돌아갔다.”¹³⁾

이상과 같이 하나의 문장에 대하여 10인 10색으로 번역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앞의 번역 중 5의 번역만이 올바른 번역이라 말할 수 있을 뿐이고 1. 2. 3. 4. 의 번역은 모두가 다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번역이라는 것이다. 1. 2. 3. 4. 의 번역은 한문번역에 기본도 아니고 추상적인 해설문과 같이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어 원문에 부합하는 번역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원효전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번역으로 인하여 원효의 입당구도 사실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入唐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그 잘못된 번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①“嘗與湘法師入唐”의 번역은 “일찍이 의상법사와 더불어 入唐하였다.”라고 단언적으로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 2. 3. 4.에서는 모두 “入唐하고자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여 入唐하지 아니한 것으로 왜곡을 하고 있으니 무슨 근거로 “하고자 하였다.”라고 왜곡된 번역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의상전의 기록과 연관지어 唐城에서 入唐하지 아니한 것처

11) 金相鉉, 『元曉研究』, 민족사, 2000, 59면.

12) 河廷龍, 『宋高僧傳 元曉關聯記事의 性格』, 『元曉學研究』 9, 2004.

13) 洪在德 논문, 2012.

럼 기록된 것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견강부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와 같은 억지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②“慕契三藏 慈恩之門”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5.와 같이 “玄契三藏을 사모하여 慈恩寺의 門人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없이 10인 10색으로 모호하게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② “현장의 慈恩門을 흠모하여 입당하려 하였다.”¹⁴⁾
2. ② “현장이 이룩한 삼장의 지혜로운 세계를 사모하였다.”¹⁵⁾
3. ② “현장삼장 자은의 문하를 사모한 때문이다.”¹⁶⁾
4. ② “삼장과 자은의 법통을 사모했기 때문이다.”¹⁷⁾
5. ② “현장 삼장을 사모하여 慈恩寺에 門人이 되었다.”¹⁸⁾
6. “慈恩寺의 三藏法師의 門下에 들어갔다.”¹⁹⁾

이상과 같이 “慈恩之門”을 번역함에 있어 10인 10색으로 번역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앞의 번역 중 5. 6.번의 번역에서만 올바르게 번역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1. 2. 3. 4.의 번역에서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는 모호한 번역을 10인 10색으로 달리하고 있으니 그와 같이 올바르게 못한 모호한 번역으로 어떻게 본뜻을 올바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같은 문장에 대하여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10인 10색으로 번역을 달리하는 까닭은 그 단어에 대한 어의를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14) 金煥泰, 앞의 논문, 1980.

15) 오대혁, 앞의 논문, 1999.

16) 金相鉉, 앞의 논문, 2000.

17) 河廷龍, 앞의 논문, 2004.

18) 洪在德, 앞의 논문, 2012.

19) 脇谷攝謙, 『新羅의 元曉法師は果して 至相大師の 弟子なりや』, 『六條學報』 83, 1908.

때문이다. 같은 문장에 대하여 두 가지로는 번역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단어에 대한 본질적인 어의를 먼저 알아야 올바른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2. 3. 4.에서는“慈恩之門”의 본질적인 어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전공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심지어는 “慈恩”을 “인자한 은혜”라고 각주까지 붙이는가 하면 44세인 원효대사가 29세(661년을 기준으로) 밖에 안 되고 僧臘도 일천한 “慈恩大師”²⁰⁾를 사모하여 入唐을 하고자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까지를 동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慈恩之門”을 번역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자 애쓴 흔적이 역역하나 결국은“慈恩之門”의 본뜻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三藏法師가 慈恩寺의 上座라는 사실과 慈恩이 “慈恩寺의 准말”이라는 어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해야 할 것 같다.

元曉傳의 본문이 23자에 불과한 짧은 문장인데도 이를 올바르게 번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자성어로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 어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원효전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入唐求道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이 23자에 대한 번역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결과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모두가 다 이 23자에 대한 진정한 어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거나 올바른 번역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뒤를 따라 답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10인 10색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며 10인 10색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니 서글픈 일이다.

20) 慈恩大師 : 본명은 窺基(632~682) 慈恩寺의 승려. 25세부터 삼장법사의 변경사업에 참여하였다.

“慈恩之門”에 대한 번역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되자 한문번역의 한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는 찬녕이 중국 중심의 시각과 치밀하지 못한 서술태도”²¹⁾ 때문이라고 찬녕을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의 와키야이켄(脇谷摎謙)교수는 1908년에 이미 그의 논문²²⁾에서 “慈恩之門”에 대하여 “慈恩寺의 三藏法師의 門人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통한 번역이나 하는 것이다.

“慈恩之門”에 대한 번역을 함에 있어 “慈恩寺에 門人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爲자 한자가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였다.” “하다.” “되었다.” “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爲”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門下에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入”자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入”자가 없기 때문에 “門下에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하지 못하고 “門人이 되었다.”로 번역을 하는 것이니 지극히 당연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고자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欲”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慈恩之門”이란 三藏法師가 上座로써 譯經을 하고 있는 慈恩寺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慈恩之門”이란 ‘慈恩寺의 門人이 되었다.’ 즉 ‘三藏法師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누구도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확한 번역이다.

慈恩寺는 648년에 唐나라 황태자 李治가 모후 문덕태후의 慈恩에 보답하고자 唐나라의 수도인 西安(長安)에 세운 사찰로써 그 규모는 1897년에 이르러 度僧이 300명 이상의 大刹로써 <大慈恩寺>라 명명하였다. 당태종이 三藏法師를 <大慈恩寺>의 상좌로 삼고 서역에서 가지고 온 經論 657부의 불서

21) 김상현, 앞의 책, 60면.

22) 脇谷摎謙, 앞의 논문.

를 번역하도록 배려를 하여 15년간 역경에 전념하는 동안 삼장을 흠모하는 불제자들이 大慈恩寺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원효와 의상도 삼장법사가 慈恩寺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삼장법사를 사모하여 650년경부터 입당을 시도하다가 661년에야 慈恩寺로 삼장법사를 찾아가 자은사의 문하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嘗與湘法師入唐 慕藏三藏 慈恩之門”의 번역에 가장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합리적인 번역이 되는 것이다.

이 하나의 문장으로도 원효가 입당구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데도 “慈恩之門”에 대한 번역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셋째 “③厥緣既差 ④息心遊往”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10인 10색으로 각각 달리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1. ③ “그 인연이 어긋나서 ④유학을 그만두었다.”²³⁾
2. ③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④쉽 없이 마음은 노닐고 떠돌았다.”²⁴⁾
3. ③ “입당의 인연이 어긋나자 ④푸근한 마음으로 여러 곳을 다녔다.”²⁵⁾
4. ③ “그 인연이 어그러진 후에 ④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여 유유자적하게 되었다.”²⁶⁾
5. ③ “현장이 열반함으로 그 인연이 어그러져 ④ 求道의 마음을 버리고 유유히 돌아갔다.”²⁷⁾

이상과 같이 “③厥緣既差 ④息心遊往”을 번역함에 있어 10인 10색으로

23) 金煥泰, 앞의 논문.

24) 오대혁, 앞의 논문.

25) 金相鉉, 앞의 논문, 59면.

26) 河廷龍, 앞의 논문.

27) 洪在德, 앞의 논문.

번역을 하고 있으니 과연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앞의 번역 중 5번의 번역만이 본뜻에 가장 근접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고 1. 2. 3. 4.의 번역은 본뜻에 근접도 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모호한 해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호한 해설로 어떻게 그 본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厥緣既差 息心遊往”라고 한 것은 四六文으로 구성된 駢儷文이기 때문에 자구번역으로는 본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자성어는 의역을 해야 뜻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厥緣既差 息心遊往을 자구번역으로 한다면 “그 인연이 어그러져 속세의 마음을 버리고 유유히 돌아갔다.”라고 번역이 되고 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도록 인연이 어그러져 하던 일을 멈추고 유유히 돌아갔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구번역으로는 그 본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1. 2. 3. 4.에서는 이와 같이 지극히 기본적인 해석도 아니며 자구번역도 아니고 해야 할 수도 없는 모호한 해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번역으로 어떻게 본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厥緣既差”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元曉와 三藏의 만남과 三藏의 열반과 관련지어 고려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원효는 10년 전부터 삼장의 문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661년에 唐城을 출발하여 서안에 있는 慈恩寺에 도착한 것은 662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만남을 무릅쓰고 겨우 三藏의 門下에 들어가는 하였으나 三藏이 664년 2월에 열반하므로 三藏의 門下에 들어 간지 겨우 1年 남짓 한 기간에 死別을 하였으니 어찌 인연이 어그러졌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연이 어그러졌다. 인연이 끊어졌다는 등으로 표현을 한 것이니 元曉와 三藏의 만남과 三藏의 열반을 관련지어 고려하지 않는다면 “厥緣既差”의 어의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厥緣既差”의 어의는 원효가 이미 入唐하여 慈恩寺에 入門한 뒤에 삼장이 1년여 만에 열반하므로 인연이 어그러졌다고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嘗與湘法師入唐 慕藏三藏 慈恩之門 厥緣既差”라고 한

문장의 문맥과도 일치하게 번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息心²⁸⁾遊往²⁹⁾”이란 삼장이 열반한 후에 새로운 스승을 찾아 험준한 명산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 밤 野宿塚間에서 悟道の 경지에 이르러 더 이상 求道の 마음을 버리고 유유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라는 깊은 의미를 압축하여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본질을 이해하고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와키야이켄(脇谷摎謙)교수는 1908년에 그의 논문³⁰⁾에서 “…… 원효전에는 入唐하여 慈恩寺의 三藏法師의 門下에 들어갔다고 되어있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入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말인 것 같다. 元曉의 저술경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당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인 것 같다. …… 미륵상생경의 소를 만든 것도 慈恩寺의 門中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 그의 행적이 당나라에서보다 신라에서 많은 것으로 보아 唐나라에는 매우 짧은 기간 머무르다가 돌아온 것 같다. …… 때문에 원효의 학문은 엄격하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매우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효대사가 入唐하여 三藏法師의 門下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원효전에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의 저술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참고가 될 것이다. 그의 저술경향을 살펴보면 삼장법사의 번역문에 대한 註釋이 많고, 또 유가·유식에 관한 저술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가 삼장법사의 학풍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어 三藏法師의 門下에 들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삼장법사의 문하에 있었던 기간이 비록 1년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라 하

28) “息心” ①俗世에 생각을 버림. ②미련을 버리고 단념함. ③善行을 닦아 惡行을 없앴. 『漢韓大辭典』 5, 512면.

29) “遊往” ①교유함. 왕래함. ②놀러 감. 『漢韓大辭典』 13, 1102면.

30) 脇谷摎謙, 앞의 논문, 1908.

더라도 664년에 삼장이 열반하므로 원효가 귀국을 하면서 삼장의 번역문 등을 다수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때에 가지고 온 불서를 독학으로 습득하여 삼장법사의 번역문에 대한 주석을 쓸 수가 있었고 또 삼장의 학풍을 따르는 기초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원효가 入唐하지 아니하고 唐城에서 되돌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삼장의 번역문을 다수 入手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역경에 대한 주석에 집필이 어려웠을 것이며 삼장의 학풍을 따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慈恩寺에 문하에 들어가 삼장의 학풍을 익힌 것이 사실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원효대사가 入唐求道한 사실을 『宋高僧傳』 원효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추적을 해본다면 唐나라 慈恩寺에 도착을 하였으나 삼장법사는 이때에 이미 기력이 쇠진하여 661년 2월부터는 慈恩寺를 떠나 玉華宮으로 옮겨가 겨우 譯經에만 여력을 다하고 664년 1월에는 吮五首經의 번역을 끝으로 도합 75종 1,335권의 번역을 마치고 이미 기력이 쇠진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미리 알고 門徒들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2월 5일에 63세를 일기로 옥화궁에서 열반³¹⁾에 드니 원효대사와 삼장법사가 대면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도 못되는 몇 개월에 불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삼장법사의 문하생으로 入籍도 못하여 入唐사실에 근거도 남겨지지 못하고 入唐사실이 없는 것처럼 世傳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삼장법사와 死別 후 새로운 求道의 길을 찾아 명산대찰을 방황하다가 어느 심산유곡에서 밤을 맞나 무덤가에서 노숙을 하다가 悟道의 경지에 이르러 666년경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 “厥緣旣差 息心遊往”라고 한 표현이 매우 적절하게 함축된 표현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고승전』 원효전의 기록이 비록 간략하게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다 함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의상전의 기

31) 王雲五 主編, 『唐玄奘法師年譜』, 臺灣商務印刷書館, 2002.

록에 비해 더욱 진실한 기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와키야이켄(脇谷擲謙)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唐나라에는 매우 짧은 기간 머무르다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또 “독학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한 것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미 상고하고 한 말일 것이니 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이냐 하는 것이다.

『송고승전』에 수록된 533명의 고승 중 신라출신의 고승 11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가 다 중국에 가서 구법을 하고 귀국을 했거나 아니면 일생을 중국에서 활동한 승려들만을 수록한 것으로 볼 때에 원효도 慈恩寺에 入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11명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林間錄』에 대한 註解論評 元曉大師의 悟道說話 抄錄

『임간록』은 북송의 혜홍각범(德洪)스님이 1107년에 찬술한 것이다. 덕홍은 眞淨克文禪師의 法嗣로 전통적인 禪師이다. 『임간록』은 고승들의 유훈 선담 한담 행적 일화 등 삼백여가지를 수집하여 수록한 紀譚警語集이다. 우리나라 스님에 대하여는 원효와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원효대사의 오도설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원문 : 唐僧 元曉者 海東人 初航海而至 將訪道於名山 獨行荒陬 夜宿塚間 渴甚 引手掬于 穴中得泉甘涼 黎明視之 髑髏也 大惡之 盡欲嘔去 忽猛省 大歎 曰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髑髏不二 如來大師曰 三界唯心 豈欺我哉 遂不復求師 卽日還海東 疏華嚴經 大弘圓頓之教

번역문 : 당나라 시대에 스님 원효는 해동 신라 사람이다. 처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에 와서 장차 명산에서 道士를 찾고자 황피한 산

길을 홀로 헤매다가 밤에 무덤사이에서 잠이 들었는데 갈증이 심하여 오목한 곳에 샘물같이 고인 물을 발견하고 손 바가지로 떠서 마셨더니 달고 시원했다. 날이 밝아 살펴보니 그것은 해골에서 흘러나와 고인 물이었다. 몹시 혐오스러워 모두 토해버리고자 하다가 문득 크게 깨달은바 되어 크게 탄식해 말하기를 마음에 생기면 만법이 생겨나고 마음에 없으면 측루와 샘물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 삼계는 유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하고 다시는 스승을 구하지 아니하고 즉일로 해동으로 돌아가 화엄경에 소를 쓰고 화엄묘법의 교화에 크게 힘썼다.

註解論評 : 『임간록』의 기록은 『종경록』이 기록된 지 146년이나 지난 후에 쓰인 것으로 『종경록』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종경록』에서는 死屍之汁(시신에서 흘러나와 고인 물)을 髑髏水(해골에서 흘러나와 고인 물)로 바꾼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死屍와 髑髏는 다 같이 부패된 屍身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임간록』의 기사에는 해골물 이야기가 새로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기 위하여 『임간록』을 인용하게 되는 것일 뿐 새로운 전거로 삼을 것은 없다. 『종경록』에서 시체가 부패된 물을 마시고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것 보다는 “해골물”을 마시고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이 강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死屍之汁 보다 해골물 이야기가 더 널리 회자되고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상에 전해지는 속설은 해골에 고인 물을 들고 마신 것으로 와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해골에 고인 물은 사실상 들고 마실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해골의 경우에도 돌출부위와 날카로운 예각이 많아 이 또한 들고 마시기에는 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설화로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임간록』의 원문을 잘못 해석하는데서 비져지는 왜곡된 와전이다.

『임간록』의 원문에는 “渴甚 引手掬于 穴中得泉甘涼 黎明視之 髑髏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갈증이 심하여 오목

한 곳(穴中)에 고인 샘물을 발견하고 손 바가지로 떠서 마셨더니 달고 시원했다. 날이 밝아 살펴보니 그곳에는 해골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이니 이는 해골에서 흘러나와 고인 물을 손 바가지로 떠서 마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골에 고인 물을 들고 마셨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왜곡된 와전이다.

VI. 結論

원효의 오도설화에 대하여 四大說話 중 『宋高僧傳』 중 원효전의 기사가 가장 정통하다고 할 수 있으나 너무 압축하고 집약하여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원효전기 23자에 元曉의 입당구도에 대한 진실이 모두가 다 함축되어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한 진정한 어의를 이해하지 못하여 올바른 번역을 하지 못하고 10인10색으로 자의적인 번역을 하기 때문에 元曉의 入唐求道 사실이 부정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효전기 23자에 대한 번역을 올바르게 한다면 원효의 入唐求道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올바르게 번역을 하는 학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송고승전』 중 元曉傳에는 입당사실은 분명하나 오도과정에 대한 기사가 부족하여 문장이 불완전하고, 『宗鏡錄』에는 오도과정에 대한 기사가 충분하고 상세하다. 따라서 원효전과 『종경록』의 기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상호보완이 되어 원효대사의 행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원효전에서 “…… 厥緣既差”까지를 前文으로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종경록』의 “唐國尋師”부터 끝까지를 연계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원효대사의 완벽한 行狀이 된다고 하겠다.

『송고승전』 중 義湘傳의 기사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리에도 모순이 많아 전거로 취할 바가 못 된다 할 것이고, 『林間錄』의 기사는 사시지증을 측루수로 바뀐 것이 새로운 뿐 특기할 것은 없다고 하겠다.

원효의 입당구도에 대하여 『종경록』에서는 의상과 함께 입당구도를 한 것으로 기록을 하였고, 『송고승전』 원효전에서도 의상과 함께 입당하여 慈恩寺에 入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원효는 의상과 함께 입당구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간록』에서는 원효가 단독으로 입당구도를 한 것으로 기록을 하였고, 『송고승전』 의상전에서는 원효가 唐城에서 오도를 하고 入唐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唐나라 땅에서 오도를 하고 홀로 귀국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사리에도 모순이 많고 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 전거로 취할 만한 자료가 못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송고승전』 의상전에 기사만을 정통사서로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원효는 입당구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것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원효와 의상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효는 도당유학을 꿈꾼지 10년 만에 “661년에 의상과 함께 入唐하여 삼장법사를 사모하여 慈恩寺의 門下에 들어갔으나 1년여 만에 삼장법사가 열반하므로 그 인연이 어그러져 구도의 마음을 단념하고 유유히 돌아갔다.”³²⁾ 라고 한 것이 원효대사의 행적에 전부이다.

義湘의 행적에 대하여 『송고승전』 의상전에 기록하기를 “661년에 唐城을 출발하여 …… 終南山 至相寺에 智儼과 三藏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화엄사상을 모두 익히고 돌아와 …… 海東華嚴初祖가 되었다.”³³⁾ 라는 것이 의상대사의 행적에 전부이다.

32)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 黃龍寺 元曉傳, 14 本文 4장 참조.

33)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 義湘傳, 12 本文 3장 참조.

이 두 가지 설은 각각 독자적인 행적인 것처럼 각각 따로따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설로 본다면 원효와 의상은 다 같이 입당구도를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원효와 의상의 행적이 따로따로라면 원효와 의상은 다 같이 661년에 당성을 출발하여 원효는 홀로 자은사의 三藏法師의 門下로 들어가고, 의상은 홀로 지상사의 智儼의 門下로 들어가서 각각 따로따로 수업을 하였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니 과연 이와 같은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설은 하나의 설이 분명하나 두 개의 설로 분리되어 기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설을 하나로 결부시켜 하나로 풀이를 해본다면 의상과 원효는 다함께 661년에 당성을 출발하여 당나라 慈恩寺에 함께 들어가고 1년여 만인 664년에 삼장법사가 열반하므로 원효는 스승을 잃고 방황하다가 야숙총간에서 오도한 바 되어 홀로 귀국하고 의상은 홀로 남아 지상사로 옮겨가 668년에 지엄이 열반하므로 671년경에 귀국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상은 三藏에게서 약 1년 간, 智儼에게서 약 4년 간 수업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상전에서는 당성에서 지상사로 곧바로 달려가 지엄이 열반할 때(668)까지 8년 동안 수학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효대사가 입당구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왜곡되는 것도 모두가 다 의상전의 기록만을 정통사서로 신봉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왜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송고승전』 중 원효전의 기사를 가장 정통한 원효의 행적으로 인정하고, 원효전에 대한 번역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원효가 자은사의 문하에 들었던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원효의 입당구도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첩경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宗鏡錄』, 中華民國 商務印書館, 1935
- 『宋高僧傳』, 中華書局出版, 1987
- 『林間錄』
- 王雲五 主編, 『唐玄奘法師年譜』, 臺灣商務印書館, 1987
- 「月光寺月朗禪師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84면

- 協谷擔謙, 「新羅의元曉法師は果して至相大師の弟子や」, 1908
- 金煥泰, 「傳記와 說話를 통한 元曉研究」, 『불교학보』, 1980
- 오대혁, 「元曉說話의 美學」, 불교춘추사, 1999
- 金相鉉, 「元曉研究」, 민족사, 2000
- 河廷龍, 「宋高僧傳 元曉關聯記事의 性格」, 『원효학연구』, 2004

A Study On The Odoseolhwa(悟道說話) Of Great Master Weonhyo

:Centered on The articles of 『Jonggyeongrok (宗鏡錄)』,
『Songgoseungjeon (宋高僧傳)』 and 『Imganrok (林間錄)』

Hong Jae-Deok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the truth of distorted theories about the Ipdanggudo(入唐求道) and Odoseolhwa(悟道說話) of Great Master Weonhyo, centered on the articles of 『Jonggyeongrok(宗鏡錄)』, 『Songgoseungjeon(宋高僧傳)』 and 『Imganrok(林間錄)』, and referring to the related research papers. This paper provided the original and translation, then commentation to examine the distortion of truth. Ipdanggudo can be verified if the original of Weonhyojeon (元曉傳) of 『Songgoseungjeon』 is translated correctly. The denial of Ipdanggudo fact was originated from the mistranslation and forced analogy of 'Jaeunjimun (慈恩之門)'. This paper focused on those errors. Weonhyo went to Tang(唐) and became a pupil of Sanzang Monk. Sanzang died in 664. On his roam to find new master, Weonhyo found enlightenment during his night sleep next to a tomb. It is considered that Weonhyo returned home alone around 664, while Uisang, the student of Jisangsa(至相寺) Jieom(智嚴), returned home in 671 after the death of Jieom in 668. Through the analysis of four stories on Weonhyo's Odoseolhwa, it was considered that the article Weonhyojeon (元曉傳) of 『Songgoseungjeon』 and 『Jonggyeongrok (宗鏡錄)』's article are most authentic. The article Uisangjeon of 『Songgoseungjeon』 is not coherent in theory, also illogical and is recorded discursively. It has little value as a reference.

Key Words : Ipdanggudo(入唐求道), Odoseolhwa(悟道說話), Jaeunjimun(慈恩之門), Sadaeseolhwa(四大說話), Haemundangjugye(海門唐州界)